

지금도 바로 그때

최근 한 기독교단체에서 교회개혁운동을 기치(旗幟)로 지난 10년간 교회문제 상담사례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내용 중 가장 문제시되었던 사례는 다름 아닌 교회의 재정전횡(財政專橫)이었습니다. 상담표본은 전국의 약 200여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한 약 450건의 상담사례에 두었습니다.

상담사례를 주제별로 묶어 순서대로 나열하면, '재정전횡'(53.1%), '행정전횡'(38.1%), '부당한 처리 및 표적설교'(35.3%), '교회건축 및 매매'(22.6%), '목회자의 성폭력'(13.9%), '허위이력 및 청빙문제'(15.0%), '설교 표절 및 이단적 설교'(7.6%) 등의 순이었습니다.

상담을 실시한 교회단체에서는 교회문제 대부분이 목회자로부터 발단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결과는 목회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우열의식, 탐욕과 교만, 왜곡된 성공주의, 자의적인 교회 재정운용, 자기중심적인 행정처리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교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당회나 제직회 구성원인 평신도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원인과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고 덧붙여 두고 있습니다.

한편 주목할 수 있는 사례분석의 결과로서 대형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교회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내부적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비유하자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본 상담사례에서의 주안점은 교회문제 대부분이 목회자가 발단의 한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하 상담사례의 낱낱을 성경의 기록과 연계하여 숨겨진 의미를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를 신축할 당시 담임목사는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교회성도들에게 헌물(獻物)을 약정할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나아가 교회성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참여하자는 뜻 깊은 의미를 공포의 변에 두었습니다. 이 교회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눈에 띄게 외형적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원근각지에서 물려든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담임목사의 권고에 따라 헌물약정에 임했습니다. 작게는 수천 원의 교회방식으로부터 크게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음향설비까지 종류도 다종다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기명(無記名)이었습니다. 곧 헌물은 실명(實名)으로 교회에 약정하였지만 교회는 이를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대외비(對外秘)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이유는 항상 헌물을 보면서 자신이 바쳤다는 의미를 되새겨 이를 매번 곱씹는 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이유는 본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한 성도는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기꺼운 마음으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음향설비를 교회에 바치기로 약정하였는데, 문제는 본인이 현물한 음향설비가 교회에 제대로 바쳐졌는지에 대한 의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풍문에 듣기로 자신만이 음향설비를 바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 성도는 담임목사에게 이에 대한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담임목사는 “누구면 아무렴 어떻겠느냐”면서 또한 “마음이 보다 중요하다”면서 한 성도의 확인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급기야 교회분열의 단초로 작용하게 되고, 이윽고 담임목사가 한 성도가 바친 수억 원의 현금을 임의 전용(일부 횡령을 포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회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이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수 07:01, 24-26)

이하 성경의 기록을 통해 위 사건의 본말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위 기록에서 아간(Achan)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여호수아를 도와 난공불락 여리고(Jericho)성을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여세를 몰아 그냥 지나쳐도 될성부른 불품 없었던 아이(Ai)성 공략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결과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유를 여쭙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중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빼돌린 사람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에 지목된 자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결국 아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간은 당시 여리고성에서 자신이 세운 공을 빌미로 자신이 빼돌린[시날(Babylonia)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shekels) 및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물건 정도는 취해도 된다는 교만한 생각에 이스라엘 전체를 곤경에 빠뜨리고야 맙니다.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앞에 회개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끝까지 죄를 숨긴 아간은 그 가족과 함께 아골 골짜기(Valley of Achor)에서 돌로써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교회의 담임목사는 은퇴시기가 5년 이상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회에서 손을 떼고 본 교회의 지원 아래 오로지 해외선교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당회에 알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당회는 목사청빙을 대외에 공표하고 적절한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에 5명의 지원자가 지원하였고, 이내 2명으로 압축되게 됩니다. 한 사람은(전자) 국내에서 공부한 목사로서 신학교로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의 경력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후자) 국외에서 공부한 목사로서 외견상 경력이 화려했을 뿐만 아니라 이력서에 자신의 가족사항을 그것도 사진까지 붙여서 일일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의 추천서는 당시 섬기고 있었던 교회의 담임목사의 것이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공부하였던 해외대학의 지도교수의 것이었습니다.

결국 후자가 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당회의 추천을 받게 되고 이어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로서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후자의 이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 의문은 부목사로 있었던 기간과 국내 한 신학대학에서 교수로서 활동하였던 기간이 중복되고 있다는 사실, 신학교에서의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실제와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당회에서 몇몇 장로들이 목사에 대한 정직성과 청렴성(허위기재)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다시 공동의회에 붙여 결과에 따라 노회에 담임목사 인준철회를 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후자는 자신의 실수라고 변명하면서 그럼에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였고 이에 당회는 “그대로 받자”는 의견(젊은 장로들)과, 다시 “공동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시니어 장로들)으로 대립(분열)되게 됩니다.

끝내 그대로 받자는 의견이 우세하여 후자는 그대로 담임목사로서

지위를 보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곧 후자는 젊은 장로들을 앞세워 자신의 반대편에 서있었던 시니어 장로들의 퇴진을 강요하게 됩니다. 후자가 내건 명분은 시니어 장로들의 퇴진으로부터 기존의 젊은 장로와 이후 시니어 장로를 대신하여 선출될 젊은 장로들을 주축으로 교회를 새롭게 재편하여야 한다는데 두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후자는 위임 당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꺾끄러운 시니어 장로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자기사람을 심겠다는 속내를 드러우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후로 후자는 설교 시에 시시때때로 전 교인 앞에서 이 같은 사실을 우회적으로 적시하면서 시니어 장로들을 꼼짝없이 구석으로 몰아 넣어가게 되고 급기야 시니어 장로들은 하나 둘 교회를 떠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후 교회는 젊은 장로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리다가 교회는 반에 반쪽으로 쪼개지고 후자 또한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젊은 장로들에 의해 교회 밖으로 쫓겨나고야 마는 운명을 접합니다. 주된 이유는 후자의 끊임없는 분열획책과 사모의 과다한 사례비 요구 및 지나치게 강압적인 교회치리 내지 간섭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고라의 패악함을 바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예화가 이상의 사례에 해당하는 좋은 기록이라고 할 것입니다(설명은 앞서 보았기로 여기서는 다시 보지 않기로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유 01:11)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멀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이백오십 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
이 드렸던 숫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민
16:30-40)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한 교회는(전자) 제법 규모가 있는 상가
3층에서부터 5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재력가 교인의 후원에
힘입어 이 교회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널따란 종교부지(宗教敷地)를
매입하고 그곳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전자는 기존의 상가 내 교회를 교회의 본 모습 그대로 같은 교단의
후자에게 매도하게 되고, 후자는 이곳에 전에 있었던 교회를 다만 주소만
바뀌 그대로 이전하게 됩니다. 곧 후자 또한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겉모습을 바꾼 셈이 되었습니다. 15억이 넘는 매각대금 50%는 후자가
입당과 동시에 전자에게 선납하고, 나머지는 은행예금금리를 더하여 3년

동안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너무 먼 곳에서 이곳 상가로 이전하였던 까닭에, 이탈된 교인 수가 제법 많아 분할대금 상환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분할대금을 아예 상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간이 때로는 길어지고 대금 또한 들쭉날쭉 상환되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자는 1년을 채 견디지 못하고 후자에게 지금까지 미납된 분할상환 대금 전액과 이자를 기간 내에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催告)하면서, 여기에 이상의 요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상당한 법적 조치에 임할 것임을 아울러 덧붙여 두었습니다.

급기야 후자의 교회는 형해화(形骸化)되고 지금 이곳은 전자의 교육관으로 재사용되기에 이릅니다. 전자는 지금도 단기해외선교랍시고 교인 중에 약 150여명을 모집하여 동남아 외유(外遊)에 임하고 있고, 이것이 정례화 되어 매년 연례행사로 자리잡게 됩니다. 소문에 한 번 경비가 약 3억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고전 11:22)

필자 또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성경예화(聖經例話)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예화(說敎例話)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놀랍게도 이러한 각양의 사이트가 산재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Hyperlink) 되어 있는 제목들은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무료설교’, ‘무료예화자료’, ‘주제별 예화’, ‘주제별 설교내역’, ‘설교은행’, ‘목회자료’,

‘절기별 설교’, ‘설교검색서비스’ 등 참으로 그 내용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이 사이트들의 공통점은 정액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설교내용을 참조하게 하거나 그대로 설교에 임할 수 있도록 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성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비롯되어야 할 설교가(앞서 본 ‘자기명시화’) 이처럼 인터넷에 버젓이 그것도 무성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꽤나 돈벌이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그러기에 무수한 목회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이것들이 자기명시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길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이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으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마 23:25-32)

성추행 문제에 관해서는 하도 말도 많고 추하고 더럽기 그지없어 어쩔까 생각하다가 못내 그도 세간에 떠도는 사례 몇몇을 추슬러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례들은 이미 신문지상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미 게재된 것으로 무작위로 엮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는 금요일집회 후 교회에서 B와 함께 교회달력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A는 둘 사이로 다가온 목사가 오른손으로 B의 어깨부터 허벅지를 쓸어내렸다고 했습니다. A는 당시 설마 목사인데 나쁜 마음으로 그랬을 리 없다는 생각에 침묵하였지만 이후 3-4일간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A는 사실규명을 위해 당회에서 목사에게 B의 몸을 만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목사는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이윽고 이 사건은 노회에 회부되기에 이르고 노회 심판위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나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몇몇 장로들이 이를 덮으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면직처분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목사는 이 뿐만 아니라 그간 교회사무원 C마저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C는 목사가 허리띠를 풀고 엎드린 채 허리를 뺏아 달라거나, 손을 만지거나, 어깨 안마를 부탁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C는 당시 어린 나이에 성추행에 대해 잘 몰랐고, 의례 목사의 부탁으로 여겨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위의 판정에 불복하고 현재 반소(反訴)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소의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을 성추행 의혹을 부풀려 음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약 300여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후 본 사건은 지금껏 봉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실상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 지고 있음을 필자 또한 우리 모두 익히 잘 알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성추행 입막음으로 3억여 원을 주었다는 등, 강변에 오피스텔을 사두었다는 등, 이 교회에서 성추행으로 물러난 것도 모자라 저 교회에서 또 다시 성추행에 임하여 법적 소송에 임하였다는 등, 그 양태와 형태가 가지가지임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추행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치 않고 변명에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당사자의 추잡한 작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를 두둔하고 어떠한 결말도 내지 않고 있는 명색이 교회지도자들의 저급한 행실 또한 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계 02:21-23)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고전 05:11)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06:09-10)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고전 10:08, 민 25)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05:19-21)

바로보아, 이제는 세상이 우릴 감싸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제아무리 변명에 변명을 늘어놓아도, 그나마 주둥이가 천 개 만 개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누구 하나 우리 곁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설자리마저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 같은 추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손가락질 하며 이르기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목사’를 ‘먹사’라고 조소(嘲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스타강사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장래는 밝다”고도 이야기 하고 있기도 합니다(앞선 ‘인인불
신신인’ 참조).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메말라 버린 지 오래되어 흘릴
눈물이 없다면 두 눈을 뽑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침상을 적셔야 합니다.
이러한 참상은 어느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목회자의 공통한 죄이자 교만입니다. 크리스천 된 우리 또한
목회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시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세상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침묵하는 중에 처절한 회개와
참회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단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해야
합니다. 떠벌리지 말고 은밀해야 합니다. 분주하지 않고 숙연해야 합니다.
미친 듯 박수치지 말고 깎지 낀 채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우쭐대지
말고 항상 세상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흔적을
가슴에 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 생각합니다.